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2. 30.(월) 12:00
(지 면) 2024. 12. 31.(화) 조간

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

- 교통사고, 화재, 범죄, 생활안전, 자살, 감염병 6개 분야에 대한 광역·기초 지자체별 지역 안전지수 공표
- 지역 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장단기 투자계획 수립 등 안전개선사업 추진

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‘2024년 지역 안전지수’를 공표했다.

- 지역 안전지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,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.
-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▲교통사고 ▲화재 ▲범죄 ▲생활안전 ▲자살 ▲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.

<지역 안전지수 분석 결과(총괄)>

□ 총 사망자 수*는 21,88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(3.1%) 증가했다.

* ('20년) 22,039명 → ('21년) 21,961명 → ('22년) 21,226명 → ('23년) 21,886명

-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,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*로 ▲교통사고(186명↓) ▲생활안전(179명↓) ▲화재(63명↓) ▲범죄(8명↓)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,

* 교통단속 CCTV(23,534→26,724대/3,190대↑),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(1,909→2,335억 원 /426억 원↑), 소방안전교육(7→11백만 명/4백만 명↑), 자동심장충격기(62,233→71,693대/9,460대↑)

- 사회구조 변화* 등에 따라 ▲자살(1,072명↑)과 ▲감염병(24명↑)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,096명 증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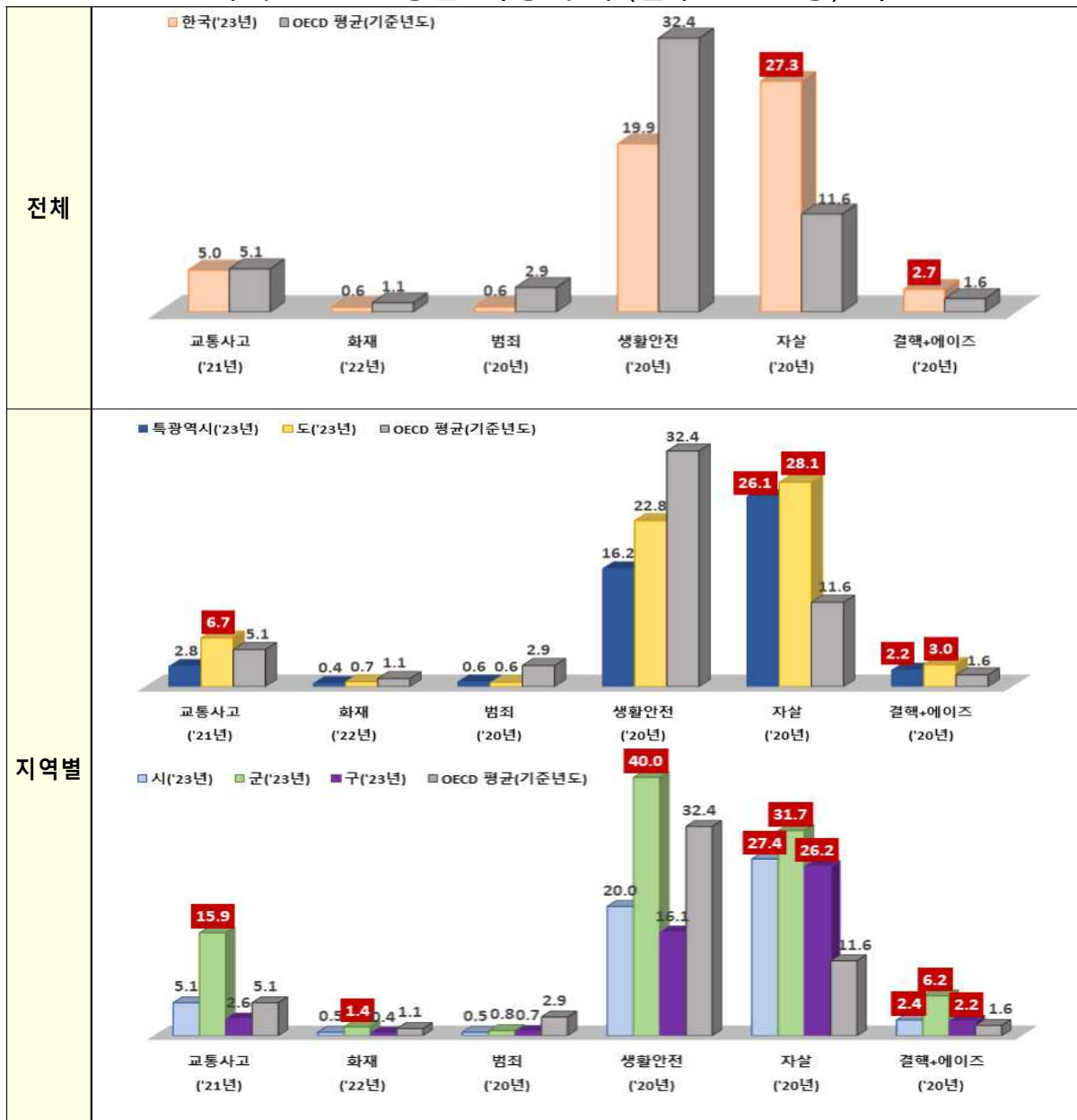
* 독거노인수(백만 명) : '18년1.4 → '19년1.5 → '20년1.7 → '21년1.8 → '22년1.9 → '23년2.1

우울감경험률(%) : '18년5.0 → '19년5.5 → '20년5.7 → '21년6.7 → '22년6.8 → '23년7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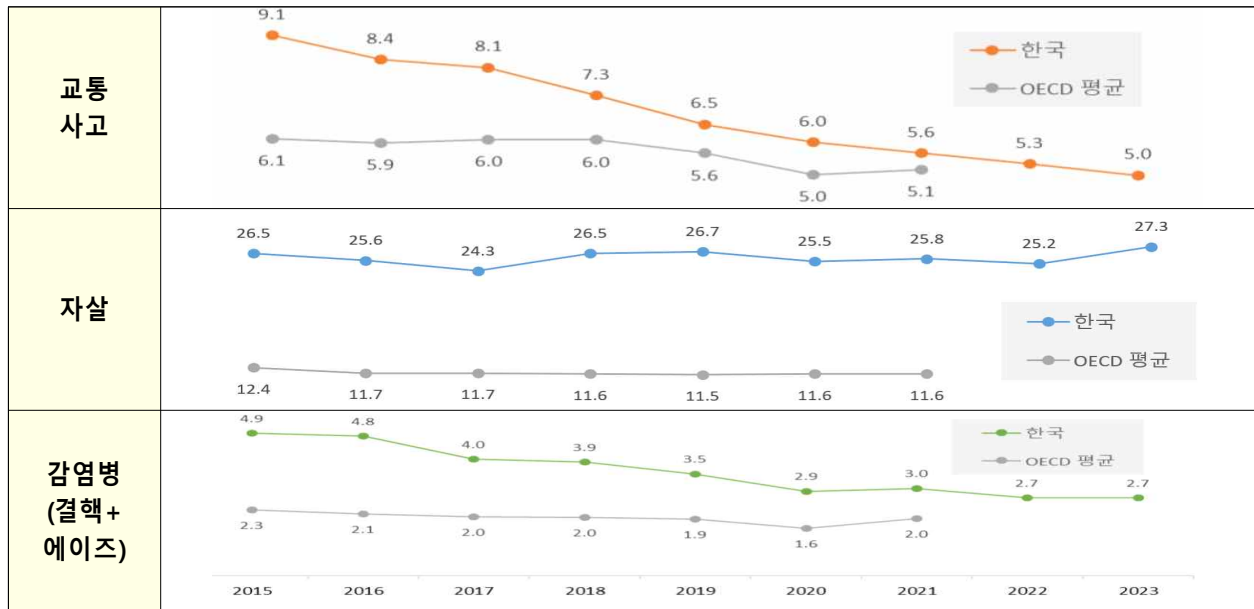
□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(한국/OECD 평균)하면 다음과 같다.

- ▲ 생활안전(19.9명/32.4명)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.6% 적게 발생했으며, ▲ 화재(0.6명/1.1명) 분야는 OECD의 절반(54.5%), ▲ 범죄(0.6명/2.9명)는 1/5 수준(20.7%)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▲ 교통사고 분야(5.0명/5.1명)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, 자치단체별로 특·광역시(2.8명)보다 도(6.7명), 구(2.6명)보다 시·군(5.1명, 15.9명)이 더 많았다.
- ▲ 자살 분야(27.3명/11.6명)는 OECD 평균보다 2.3배 높고 ▲ 감염병 분야(결핵+에이즈, 2.7명/1.6명)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.

<한국과 OECD 평균 사망자 수(인구 10만 명) 비교>



< 교통사고, 자살, 감염병 분야와 OECD 평균 추세 비교 >



※ 한국의 '22 '23년 값은 국내 통계값으로, 향후 국제 통계(OECD Statics)와 일부 오차 있을 수 있음 OECD 통계 제공 국가 분야 및 년도마다 차이 있음

<지역 안전지수 산정 결과>

-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* 1등급은 ▲ 교통사고-서울·경기 ▲ 화재-세종·경기 ▲ 범죄-세종·전남 ▲ 생활안전-부산·경기 ▲ 자살-세종·경기 ▲ 감염병-울산·경기로 나타났다.

* 분야별로 1~5등급으로 구분, 시/도/시/군/구 각각 5개 그룹별 상대평가로 산정
(1등급: 0~10%, 2등급: 10~35%, 3등급: 35~65%, 4등급: 65~90%, 5등급: 90~100%)

-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(교통사고·화재·범죄·감염병), 부산 기장군(교통사고·화재·생활안전·감염병), 충북 진천군(교통·생활안전·자살·감염병), 광주 남구(화재·범죄·생활안전·자살)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.

-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-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*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·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.5%(31→11명)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→3등급으로 상승했다.

* 전년대비 소방안전 교육 인원수 91.4% 증가(414→792천 명)

-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(127개소)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.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(지난해 9명),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→1등급으로 상승했다.

< 시·군·구 중 주요 개선지역 30개소 >

유 형	개선 등급 상승(9개소) ^{전년대비 등급개선}	개선 분야 다수(21개소) ^{★개선 분야수}
시(6/75)	경기 과천 화재 ^{5→2}	경기 오산 ★ ³ , 강원 원주 ★ ³ . 동해 ★ ³ . 속초 ★ ³ , 경북 문경 ★ ³
군(19/82)	강원 양양 화재 ^{5→1} · 교통사고 ^{5→2} . 홍천 화재 ^{5→2} · 화천 자살 ^{5→2} , 전북 진안 감염병 ^{4→1} , 경북 의성 교통사고 ^{4→1}	강원 고성 ★ ⁵ , 경남 의령 ★ ⁴ , 강원 양양 ★ ³ , 충북 옥천 ★ ³ . 증평 ★ ³ . 진천 ★ ³ , 충남 서천 ★ ³ , 전남 영암 ★ ³ . 함평 ★ ³ . 신안 ★ ³ , 경북 성주 ★ ³ . 예천 ★ ³ . 봉화 ★ ³ . 울진 ★ ³
구(5/69)	부산 중구 생활안전 ^{5→2} . 사상 화재 ^{5→2} , 대구 중구 화재 ^{5→2}	부산 동구 ★ ⁴ , 부산 수영 ★ ³

- 모든 분야에서 1·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·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‘안전지수 우수지역’으로, 6개 분야 중 하위등급(4·5등급)이 없는 25개 지역은 ‘안전지수 양호지역’으로 선정됐다.

<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안전지수 우수 및 양호지역 28개 >

유형	안전지수 우수지역 (3개 지역)	안전지수 양호지역 (25개 지역)
시(15/75)	과천, 의왕, 계룡	안양, 고양, 구리, 남양주, 군포, 하남, 용인, 파주, 화성, 동해, 군산, 광양
군(6/82)	-	화천, 옥천, 화순, 영광, 완도, 예천
구(7/69)	-	서울 노원구, 양천구, 부산 해운대, 인천 연수구, 광주 남구, 대전 유성구, 울산 북구

- ‘2024년 지역 안전지수’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(www.mois.go.kr), 국립재난안전연구원(www.ndmi.go.kr) 및 생활안전지도(www.safemap.go.kr)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*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모델 사업 예산(소방안전교부세 20억 원, 지방비 20억 원)
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세건 (044-205-4519)
	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	책임자	실 장	김윤태 (052-928-8100)
		담당자	연구관	신진동 (052-928-8130)



2024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

교통사고 분야

안전등급

1등급

2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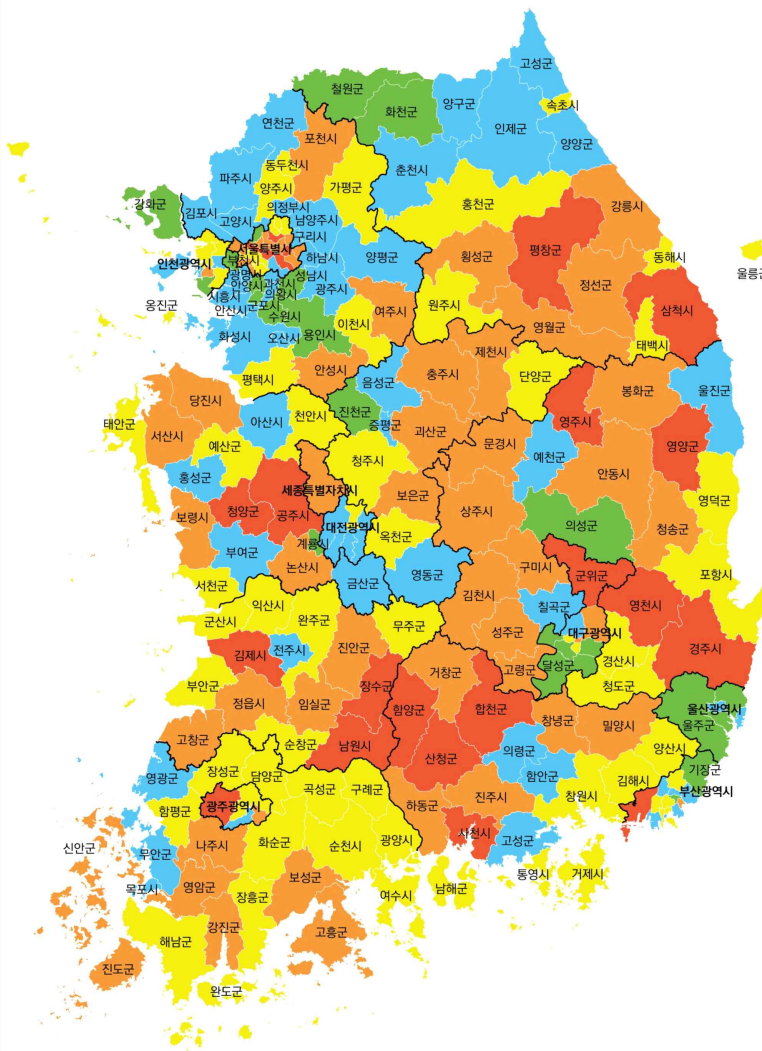
3등급

4등급

5등급

기초

광역시



서울



부산



대구



인천



광주



대전



울산

2024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

화재 분야

안전등급

1등급

2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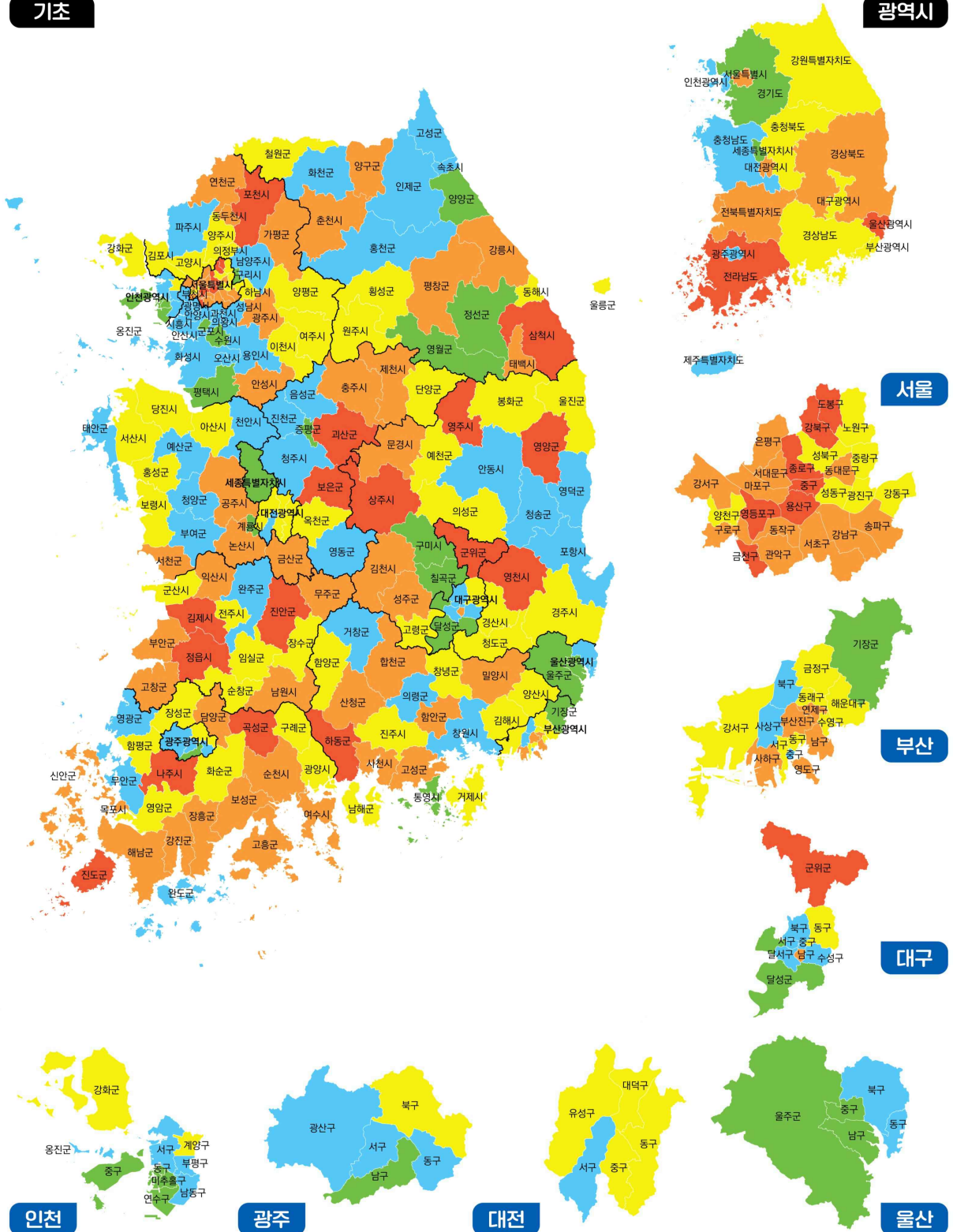
3등급

4등급

5등급

기초

광역시



2024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

범죄 분야

안전등급

1등급

2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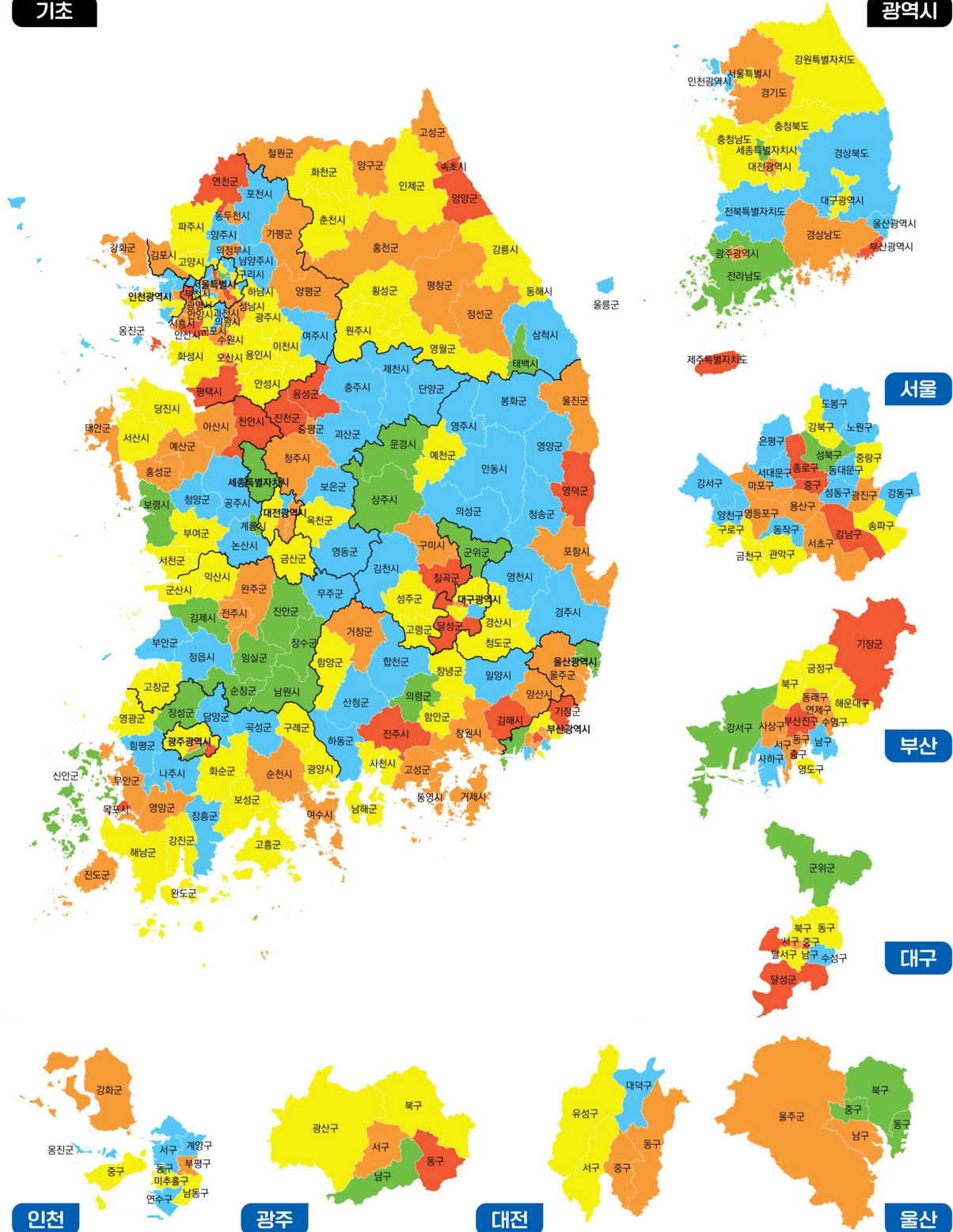
3등급

4등급

5등급

기초

광역시



2024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

생활안전 분야

안전등급

1등급

2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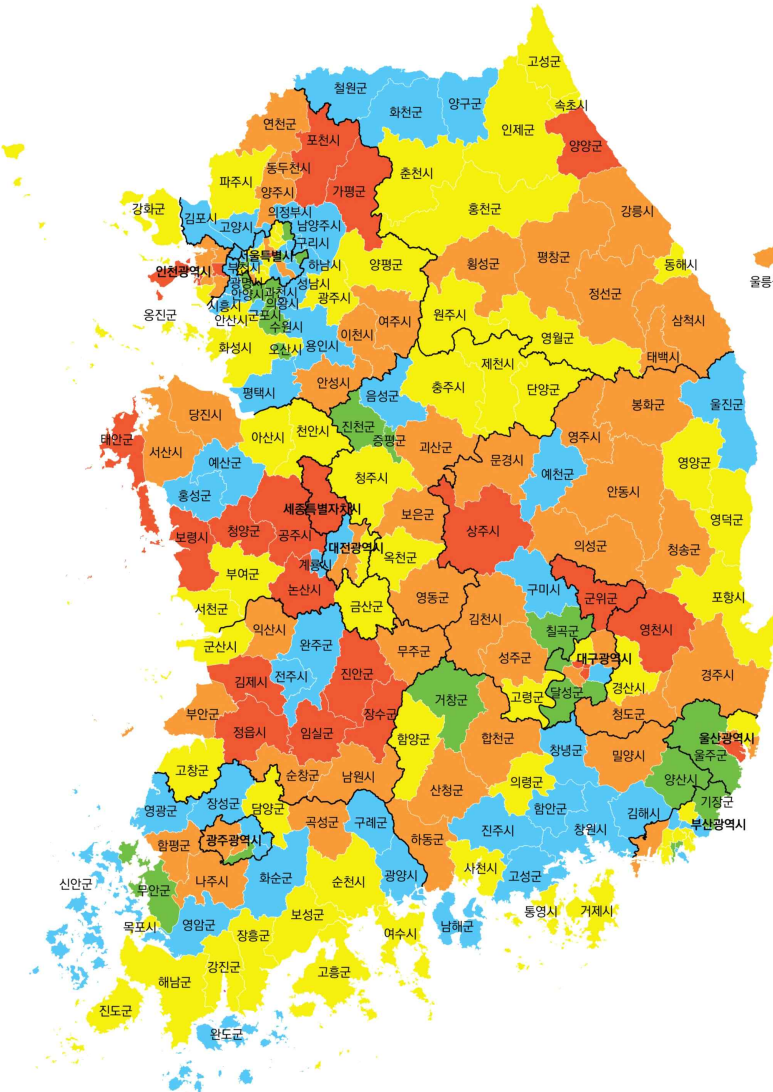
3등급

4등급

5등급

기초

광역시



인천

광주

대전

울산

2024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

자살 분야

안전등급

1등급

2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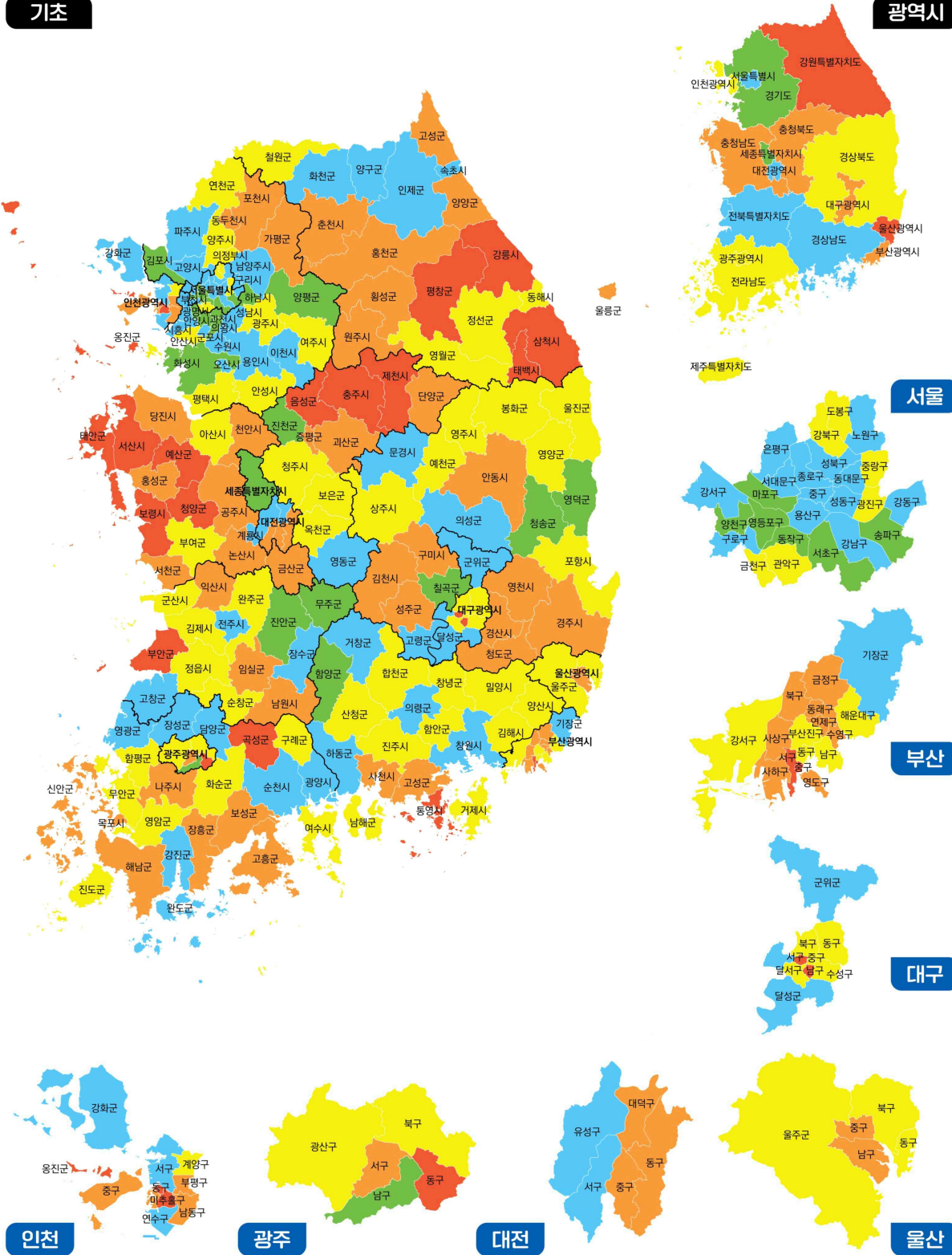
3등급

4등급

5등급

기초

광역시



2024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

감염병 분야

안전등급

1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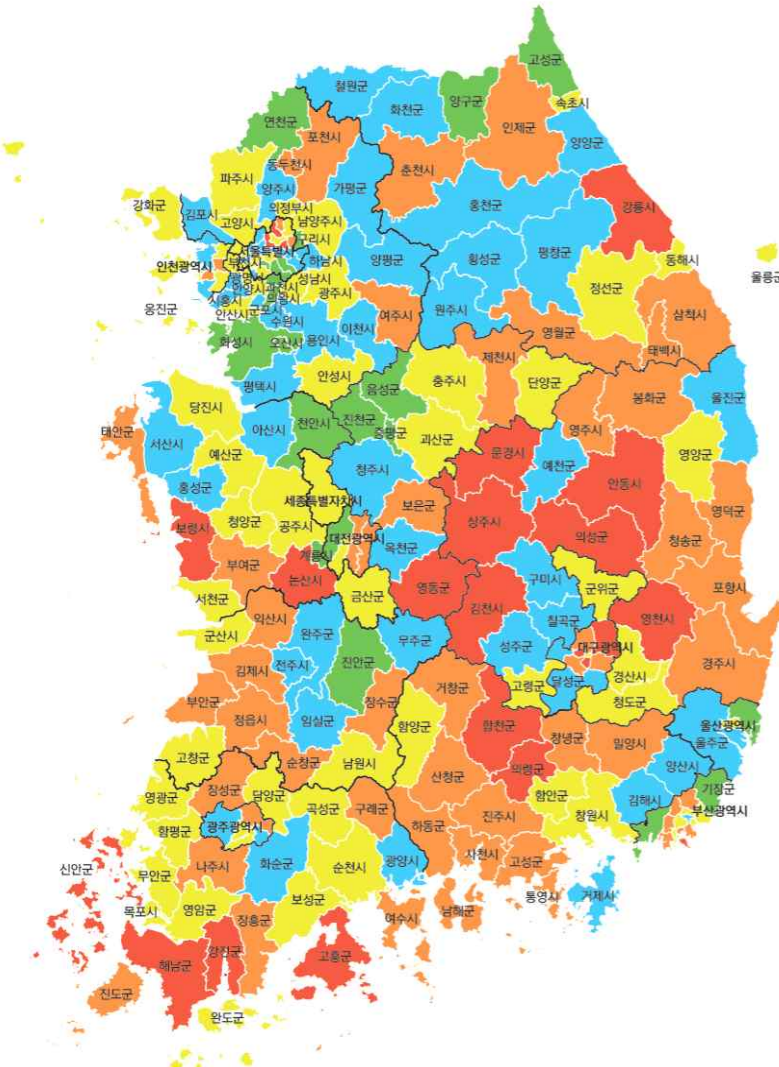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기초



광역시



서울



부산



대구



울산



인천



광주



대전

